



합성수지 재활용으로 친환경적 소비생활을

가길현/서울시 영등포구 환경관리 과장

흔히 환경오염의 주범을 합성수지 과다사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비닐류 등 재활용이 안되는 1회용품 사용증가가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를 가져오며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발상을 전환하면 합성수지의 사용이 오히려 환경친화적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합성수지는 자연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랜 기간 악취나 변질없이 보관

이 가능하며, 분리수거가 될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고, 폐기되었을 경우 미관상의 문제점은 있으나 중금속과는 달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즉, 쓰레기로 매립하였을 경우 매립지의 안정화 기간은 지연되지만 생태계에 해를 미치지 않으며, 잘 설계된 소각장에서 소각하면 오히려 쓰레기의 발열량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만 않는다면 합성수지는 거의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합성수지의 생산 및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역으로 합성수지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원료가 원유에서 추출되므로 목재 사용과는 달리 산림을 파괴하지도 않으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사용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사용량이 급증하고 재질이 너무 다양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분리 배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안타깝다. 예를 들면 스티로폴을 재활용한 제품인 블록이나 액자, 합성목재 등에 별도의 재질표시가 없어 일반인이 고무류 제품과 잘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런 점만 보완한다면 지금보다 재활용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합성수지 자체가 환경에 악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데 재활용까지도 수월하다면 이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또 있을까 싶다. 종이봉투가 썩기 때문에 비닐봉투보다 더 환경에 유익하다고 믿는 분들이 아직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친환경적 제품이라고 해도 남용하면 그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포장재에서 남용이 심각한데 제품의 보관과 이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포장만 허용하여야 하며, 자원을 낭비시키는 광고지 코팅 등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곤란하다면 불매운동이라도 벌이는 것은 어떨까?

가볍고, 단열성, 기능성, 완충성이 뛰어난 스티로폴 등 합성수지 제품에 대하여 이중포장 금지 등 강력한 남발억제 장치와 분리배출 및 수거가 용이하도록 모든 제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재질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생산 및 소비생활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함께 해결하는 지혜를 모으도록 하자. ㉸